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중기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이어 부담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 사업...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원)으로 먼저 시행하였으며, 이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

감 크레딧 1조5,60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별 지원 내용으로 먼저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

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되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하여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88-0600)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2025년 개업자는 2025년 매출액 국제청 상반기 신고기간인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되어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24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2025년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회장 진안농협 김문종 조합장)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는 마트사업을 선도하는 지역농협 조합장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농협간의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규회원 가입 승인(변산농협, 고산농협)과 함께 2024년도 사업결산 및 2025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임원선출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현 회장과 부회장, 감사가 만장일치로 연임을 확정받았다.

김문종 협의회장(진안농협 조합장)은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여 농산물 판매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이정환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상승 등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관내 하나로마트가 지역 농산물 판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한·사우디 정부 공동 중동 진출 중소기업 선발·지원

중기부, AI 등 4개 분야 중동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 7월 7일부터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대사테리 문병준, 이하 주사우디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7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AI, 바이오·헬스, 관광·엔터테인먼트, 스마트시티·건설 등 4개 분야이며, 총 27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AI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 분야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정 가능하다.

선발 기업 수와 참여기관은 사우디 정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우디 참여기관은 7월 초에 확정될 예정으로, 관련 정보는 별도 공지 예정이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7월 24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7월 말 서류평가, 8월 사우디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은 현지 진출 및 사업수주, 투자 유치를 위해 9월말 사우디를 방문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및 인터뷰, 투자유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우디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한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 AI 총괄기관인 HUMAIN의 경우 기업당 최대 200만 불의 사업 위탁 또는 자본 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한국 스타트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단, 적정 기업이 없을 경우 사업위탁 또는 자본 투자가 없을 수 있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지원사업과 사우디에 대한 참가기업의 이해도 제고 및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사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일시 및 장소는 1차는 7월 8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B1층), 2차는 7월 10일, 대전역 KTX 회의실(우암홀, 5층)이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제13회 준(準) 감사인 대회 개최

우수자 포상, 청렴·인권·안전 등 의견수렴 장 마련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상임감사 허정환)은 25일 완주군 본사에서 전국 준 감사인(본사, 사업소)을 대상으로 KESCO 준(準)감사인 대회를 개최했다.

감사업무 시작자해 해소를 위해 마련된 '준 감사인 제도'는 각 부서 실

무 전문가에게 감사 관련 업무를 맡기는 제도다.

평소에도 부서 내 감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적발보다 예방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1년 이 제도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이듬해

인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우수 감사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준 감사인 대회는 허정환 상임감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지난해 감사 성과 공유, 청렴·인권·안전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감사 중점 사항을 발굴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뛰어난 활동을 펼친 준 감사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국산 폴리올레핀 필름’ 성능 입증

농진청, 기존 필름 대비 교체 비용 50~75% 절감

우리나라 시설 재배면적은 전 세계 3위다. 국내 시설 온실은 주로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나 폴리에틸렌(PE) 필름으로 시공한다.

이보다 품질면에서 한 단계 높은 폴리올레핀(PO) 필름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국산 자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탓에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EVA 필름은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를 화합해 만들었으며, PE(폴리에틸렌) 필름보다 투명성과 보온성 강도 등 기능성을 보강한 필름이다.

폴리올레핀(Polyolefin) 필름이란 폴리올레핀계 물질을 원료로 3~5겹으로 제적(겹마다 다양한 PO 원료와 기능성 첨가제 투입해 만든 필름)한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온실용 폴리올레핀(PO) 필름이 성능과 경제성, 친환경성이라는 '삼박자 효과'를 갖추며 농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2020~2022년 국내 업체와 공동 개발한 폴리올레핀(PO) 필름은 외부에 산화 방지제를, 내부에는 물방울이 고이지 않는 특수 첨가제(유적제)를 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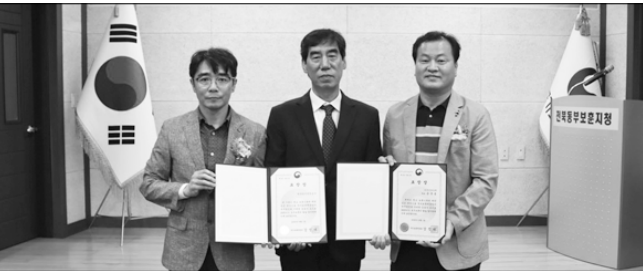
처리해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필름보다 햇빛 투과량은 15~20% 더 많고, 온실 내부 평균 온도는 1~1.3도(℃) 더 높게 유지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린다.

내부에 맺히는 물방울은 빛(광) 투과를 방해하고 물방울이 식물체 위에 떨어져 병을 일으키거나 순댓이 등 생리장해의 원인이 된다.

이런 특성이 4년 이상 오래 유지돼 개발 초부터 일본산과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진이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을 빛 양이 적고 온도가 낮은 11월에 참외 온실에 적용한 결과,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필름보다 열매 맺힘(착과율)이 6~8일 정도 빠르고 열매 크기는 25~27% 이상 커진 것을 확인했다. /오상근 기자



유공자 지원... 전기안전공사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4일 국가유공자 지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2012년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국가유공자 약 1300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점검 및 노후설비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본사 소재지인 전북 완주군의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6·25 당시 간호장교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집을 방문해 노후설비 개선 봉사를 진

행하고,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뿐 아니라 공사는 전기안전 수칙을 숙지시키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고령의 국가유공자 생활 안전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에 이어 이번에 2번째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국가 유공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